Korean J Relig Educ
Vol. 67, pp. 205-229, December 2021
https://doi.org/10.58601/kjre.2021.12.30.11

종교교육학연구
pISSN 1229-6627
eISSN 2672-1767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hristian Education by Qodashim, Jewish Mishna*

Jangheum Ok
Hansh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lternatives for the qualitativ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urch and restore the faith of the Korean church through Mishnah Kodashim, just as Jews have restored their faith through the life of contemplating, teaching, praying, and practicing the Word of God (Torah) in the face of hardship and adversity for thousands of year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four things; the essence of Mishna, the meaning of the synagogue, the main contents of Mishna Kodashim, and the application plan of Mishna Kodashim to Christian education. The applicability of 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church through Judaism Mishnah Kodashim was suggested; first it must be a “worship in memory of the grace that Jesus Christ shed by the sacrifice of Himself.” Second, “Christian church education” is important to remember, study, teach, and lear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such as the “House of Learning” of the synagogue. Third, Christians should “learn and practice God's words seriously,” just as Jews obey Moses' law and live. Now, the Korean church must set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Jewish spirituality and their lives, just as Jews have restored their faith through synagogues. The Korean church should serve in the work of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and transforming the world In this sense, the church should be understood as a “synagogue(church)” based on the prophet tradition, not as a “temple” of the ritual religion.

Key words : Judaism, Mishnah, Qodashim, Synagogue, Kohen, House of Learn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Received November 22, 2021 **Revised** December 12,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Author: Jangheum Ok, Professor, Department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hin University
okjh@hs.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유대교 미쉬나 코다쉼(Qodashim)의 기독교교육 적용방안*

옥장흠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 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에서도 유대인들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토라)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한 것처럼 미쉬나의 코다쉼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미쉬나의 본질과 회당의 의미, 미쉬나 코다쉼의 주요 내용, 미쉬나 코다쉼의 기독교 교육의 적용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유대교 미쉬나 코다쉼을 통해서 한국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유대교 회당의 “배움의 집”과 같이 기독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구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기독교 교회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유대인의 영성과 그들의 삶에서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세계를 변혁하는 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제의 종교의 “성전”이 아니라 예언자 전통에 서있는 “회당”(교회)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어 : 유대교, 미쉬나, 코다쉼, 회당, 희생제사, 배움의 집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Ⅰ. 서 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새벽기도회, 주일낮예배, 주일오후(밤)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등을 통해서 열정적이고 뜨거운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교회와 교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조기연, 2019: 8). 또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 Corona Virus Disease)19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한국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나 선교단체, 이단단체 등을 통해 급속하게 번지게 되자, 비기독교인들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국 교회가 단순한 “종교집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윤응진, 2010: 400).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희망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마 1:15)와 관계없는 “맛을 잃은 소금”(마 5:13)의 종교집단에서 벗어나,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사건을 가능하게 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승함으로써 율법의 지침에 따라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올바른 삶을 실천하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신자들을 양육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유대교의 경전인 미쉬나에서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의 대안을 유대교 경전 미쉬나의 다섯 번째 책인 코다쉼(Qodashim)에서 찾고자 한다. 특히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회당을 통해서 토라(미쉬나)를 가르침으로 유대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생활의 지침으로 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교 미쉬나의 본질과 회당의 의미, 유대교 코다쉼의 내용분석, 미쉬나 코다쉼의 기독교교육 적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미쉬나의 코다쉼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유대교 미쉬나의 본질과 회당의 기원

유대교 미쉬나의 본질과 회당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유대교 미쉬나의 본질을 유대교 미쉬나의 기원과 미쉬나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어서 회당의 기원을 성전, 회당, 교회, 회당의 기원과 기능,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기독교회 예배로 전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쉬나의 본질

1) 유대교 미쉬나의 기원

이스라엘은 B.C.E.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였다(Johnson, 1998: 166).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종교적 행위는 금지되었으며, 비천한 백성만을 남겨 두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열왕기하 25:1-12, 에스라 1:1). 암담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로지 '토라'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깨닫게 되었다(Johnson, 1998: 187). 그러므로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다시 생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라는 장소를 통해 토라를 읽고, 배우고, 가르쳤다. 토라연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소페림이라고 불렀으며, 소페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사로서 에스라가 있었다(에스라 7:6). 그는 '모세 율법에 뛰어난 학사'로서 가장 뛰어난 소페르(Sofer: 서기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Musaph-Andriesse, 1981: 22). 소페르는 전문적인 율법학자로서 유대인의 지도층으로 등장하게 된다(정연호, 2010: 48).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신앙은 물론 생활양식들이 구별되어야 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에스라는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토라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의도)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Levi, 1990: 165-170). 유대교 문헌에 의하면, 에스라는 크네세트 하그돌라(최고회의: Keneseth Hagedolah)를 창설한 사람이다(Cohen, 1994: 11-16).

B.C.E 539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근동 아시아의 패권은 다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맞게 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아의 지도자와 더불어 바벨론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다. 에스라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에스라 이후 제2성전 시대(B.C.E. 515-CE 70: Zugot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제2성전 시대에는 셀룩시스 그리스인들, 헬레니즘적인 영향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유대인들이 이교도 집단들에게 대항했던 갈등의 시기였다(Steinsaltz, 2006: 43). B.C.E. 333년 그리스 알랙산더가 출현하여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다시 근동 아시아의 패권을 잡았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그리스 문화인 헬레니즘에 동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알랙산더가 죽고, 그 이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 B.C.E 167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의 값비싼 기물들을 안티오키아로 가져갔다(마카베오 상 1:20-24). 이제 유대교는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경건한 자들이라 불리는 하시딤(Hassidim)이 출현하게 되었다. 여기에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맛다디아(Mattathias Hasmon)와 그의 다섯 아들(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로 대표되는 하시딤의 지도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를 비롯한 셀룩시즈 통치자들의 강력한 탄압에 저항하였다. 하시딤의 지도자들은 토라의 신앙을 배반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하면서 강력하게 압박에 저항하였다(Steinsaltz, 2006: 44-45). B.C.E. 167-164년 마카비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국권을 회복하였다(최창모, 1994: 131-312). 그러나 C.E. 66-70년 유대전쟁의 패전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제국에게 멸망하게 되어, 유대인들은 1948년 해방되기까지 전세계를 떠돌아 다니는 디아스포라(Diaspora) 상태가 되었다.

특히, 제2성전 시대(주고트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학자들로서 이 시대의 마지막 학자인 힐렐(Hillel)과 샤마이(Shammai)가 있었다. 힐렐과 샤마이는 새로운 시대인 타나임 시대를 창시한 학자들이기도 하다. 타나임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헤롯왕이 통치했던 초기시대로서, 마지막 학자 힐렐과 샤마이에 의해 타나임 시대가 시작되었다(Unterman, 1971: 287-291). 이 탄나임 시대가 교육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적이고, 독립적인 창의적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외부와 내부적으로 긴장과 위기의 시대였다. C.E. 70년 로마인들에 의한 성전의 파괴로 인하여, 종교적인 생활조직이 재조직의 필요성이 긴박하였다. 특히, 기독교의 발전으로 인하여 유대교에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Steinsaltz, 2006: 49).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타나임들은 유다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원동력은 타나임들이 전통을 적용, 실천하고, 성경을 경전화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위한 종교적 지침을 제시했던 데서 찾을 수 있었다. 성전이 파괴된 후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로마의 승낙을 얻어 야브네(혹은 얌니아)를 유다이즘의 본거지로 삼았다. 그 곳에서 그는 많은 학자들을 모아 학교를 세웠으며 실의에 찬 백성들에게 고무시킬 수 있는 유다이즘의 기본구조를 이룩하게 되었다. 유대교 타나임 시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옥장흠, 2011: 60). 첫째, 지금까지 구전되었던 율법을 성문화 시켰던 시기이다. 즉, 유다 하나시(Judah Ha-Nasi)에 의해 C.E. 200-220년 경에 미쉬나가 완성되었다. 둘째, 토세프타(Tosefta: 미쉬나의 보충설명집)가 완성된 시기라는 점이다. 셋째, 바라이타(Baraita: 미쉬나에서 빠진 타나임의 가르침이다)가 완성되었다. 넷째, 미드라쉬 할라카(Midrash Halakah: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석이다)가 편집된 시기이다. 다섯째, C.E. 70년 구약성경이 얌니아회의에서 정경화되었다. 여섯째, 이 시기에 타나임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팔레스타인 출신들이었다.

2) 미쉬나의 구조와 내용

(1) 미쉬나의 구조

미쉬나(משנה, Mishnah)는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책이다. 미쉬나의 의미는 '반복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샤나(שנה, shanah)'에서 나왔다(Neusner, 1973: 26). 그러므로 미쉬나는 반복하여 외운다는 의미이다. 미쉬나를 편집한 학자들은 탄나임 학자들이다. 탄나임 학자들은 C.E. 20-200년경의 학자들로 구전 율법에 자신들의 해석을 추가해서 미쉬나를 완성시켰다(정연호, 2010: 153). C.E.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지켜온 법률들이 성전이 파괴되어 사라진 상황에서 유대교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토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었다. 더욱이 구전으로만 이어 오던 율법 해석의 전통이 단절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이전의 모든 주요 구전을 모아 기록하는 일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최인식, 2008: 106-107). 미쉬나(구전 토라)는 다음과 같은 전승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최중화, 2019: 131).

> 모세 → 여호수아 → 장로들 → 예언자들 → 위대한 공의회 사람들 → 시몬 하짜딕 → 안티고누스 쏘코 → 쩨레다의 요세 벤 요에젤 → 예루살렘의 요세 벤 요하난 → 여호수아 벤 페라리야 → 니타이 → 예후다 벤타바이 → 시므온 벤 샤타흐 → 세마이야와 아브탈리온 → 힐렐과 샴마이 → 라반 가말리엘 → 요하난 벤-자카이 → 라반 가말리엘 2세 → 라반 시몬 벤-가말리엘 → 랍비 예후다 하-나씨

미쉬나를 완성시킨 예후다 하-나씨는 6개의 큰 주제(쎄다림)로 나누어 구전 율법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미쉬나는 기원후 200년경에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최중화, 2019: 134). 이러한 미쉬나는 모세오경의 법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전과 관련된 제의적인 부분도 다루지만, 일상적인 삶에 대한 작은 정결법도 중요하게 다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세부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는 것이다. 이 미쉬나는 크게 여섯 개의 세데르(Seder)로 구성되어 있다(Mishnah, 2021). 제1권 "제라임"은 농업관련 법령을 다루고 있으며, 십일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제2권 "모에드"는 각종 유대교의 종교 절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안식일의 노동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제3권 "나쉼"은 주로 가족법을 다루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등이 언급된다. 제4권 "네찌킨"은 주로 형법과 민법에 해당하는 사항들로 재판 진행 방법 등이 논의된다. 제5권 "코다쉼"은 성전 제사와 제물, 음식법 등의 주제를 다룬다. 제6권 "토호롯"은 정결법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결함과 부정함, 각종 질병과 여성의 월경, 더러움을 씻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최중화, 2019: 134).

(2) 미쉬나 코다쉼(קדשים)의 내용

미쉬나 코다쉼은 미쉬나의 5번째 책(세데르, 마섹톳)으로 성전의 제사와 제물, 제사장에 대하여 설명하는 규례이다. 먼저, 히브리어 코다쉼이란 거룩한 것들이라는 의미하고 있으며, 11개의 마세켓(소주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다쉼은 거룩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거룩한 제물인

지성물과 일반 성물을 구별하고 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속죄제나 속건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화목제의 경우 그 제물은 지성물이 되는데, 제사 후 남은 고기는 제사 당일에 제사장이 성전 뜰에서 먹어야 한다. 반면 일반 성물의 경우 누구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꼭 성전이 아니어도 예루살렘 성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이틀 내에 먹으면 된다(전재영, 2019: 154).

2. 유대교 회당의 의미

유대교 미쉬나 '코다쉼'(거룩한 것들)을 한국 교회의 기독교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당'(synagogue)의 기원과 의미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성서가 보여주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의적 삶의 장소는 성막이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은 출애굽 한 이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수여 받음(출 20장)과 동시에 지시를 받아 '성막'(tabernacle)을 제작하였다(출 25-40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토라)의 가르침에 따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막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 삶을 살았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의적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레 11:45). 유대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말씀, 곧 토라를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유대인들이 토라에 순종하는 삶의 표식은 "할례"(circumstances), 안식일(sabbath)과 절기(feasts) 준수,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kosher), 정결한 삶을 위하여 여러 가지 희생제사(offering and sacrifice services)를 드리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모세 시대 이후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바로 '코다쉼'이다. 이러한 성막시대부터 성전시대에 적용되던 코다쉼은 바벨론포로기 이후 등장한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치면서 변화를 가져왔고, C.E. 1세기에 구약과 유대교의 흐름에서 파생된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예배와 영성생활에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교 미쉬나 코다쉼과 관련하여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전, 회당, 교회

최초로 설립된 예루살렘의 제1성전(솔로몬 성전)은 380년간 지속되었다. 제1성전은 통일왕국시대 다윗 왕이 성전 설립 준비를 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B.C. 966년부터 시작하여 칠년 후 B.C. 959년에 완성하였다(왕상 6:1; 6:33). 제1성전은 남유다의 22대 시드기야 왕 집권 시대인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왕, 귀족,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유대교(Judaism)와 회당(synagogue)이 등장하였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회당의 출현 시기는 세 가지 가능성, 곧 바벨론 포로기 이전,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이 출현하여 정착된 것으로 본다(이일호, 2008: 42; 이성민, 2011: 158).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새로운 종교제도로 정착해 나갔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등에 의해 재건된 스룹바벨성전(제2성전) 시대에는 '제사장'과 함께 '학사'(The Scribe; 서기관)가 등장하였다(에스라 7:6, 10).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학사였다. 에스라는 성전에서 절기를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에 매진하였다(에스라 7:6; 느헤미야 8:1-14). 바벨론포로기 이후 재건된 제2성전은 B.C.E.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게 큰 수난을 당한 바 있다. 로마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이두매인으로 유대 땅의 지배자로 군림한 헤롯왕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으로 예루살렘 제2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다. 이 헤롯성전은 예수의 시대에도 그 기능을 하였다. 회당 역시 유대인들의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회당에는 최고 책임자인 회당장(archisunagogos: ruler of the synagogue), 서기관(soferim), 랍비(rabbi), 하잔(hazzan) 등이 있었다. 예수는 당시 헤롯 성전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는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들과 환전상을 내쫓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다(요 2:13-22). 또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막 13:2)고 예언하였다. 이 헤롯성전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C.E. 70년 로마제국의 장군 디도에 의해 파괴되었고, 오늘날까지 재건되지 않았다.

한편 신약성서 마태복음 16:16에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설립하겠다는 '내 교회'(ekklesia)는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메시야로서 예수의 초기 복음사역의 중심 장소는 바로 회당이었다(마 4:23-25; 막 1:21-28; 눅 4:16-30).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 장소로 여러 지역의 회당이 등장한다(행 13:14; 14:1; 17:1; 18:19; 19:8).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터전은 여전히 성전과 회당이었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유대인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고, 회당 출입을 거부한데서 시작한다(행 24:5). 1세기 초대 교회의 뿌리에는 유대교가 자리하고 있지만,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짐으로 점차 유대교와 적대관계로 점차 분리되기 시작하였다(왕대일, 1997: 49-50; 이성덕, 2011: 7-8). 그러나 기독교회의 영적 자원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유산과 신앙적 사고와 관습, 구약성경, 예배, 기도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2) 회당의 기원과 기능

회당(synagoge)의 어원은, 먼저 그리스어로는 '수나고게'(συναγωγή)이다. 기본적으로 종교적 의미를 배제하고 '함께 모인다.'(gathered together), '모임'(assembly)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

리어 어원은 '베트 크네세트'(בית כנסת)로 '모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약성서 70인역(LXX)에 등장하는 '수나고게'는'회중'(congregation) 또는 '모임'(assembly)의 뜻을 갖지고 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필로(Philo), 요세푸스(Josephus), 그리고 신약성서 기자들은 회당을 '모임의 장소'(place of assembly), '예배와 교육의 장소'(house of worship and instruction)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스어 'synagogue'를 유대인들이 차용하여, 그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회당'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회당은 유대교의 종교적 색채를 강조하는 '모임의 장소', '예배와 교육의 장소'로 그 의미를 확장한 것이다(McMinn, 1978: 117). 유대교의 회당은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과 다시 회복된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됨으로 제사제도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유대인들은 회당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여하신 토라를 배우고, 계시의 말씀을 복종하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선민 유대인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경건한 종교적 삶을 완성하는 궁극적 길이었다(박은규, 1996: 69).

유대교 회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맥민(Don J. McMinn)은 회당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McMinn, 1978, 117): ① 회당은 '모임의 집'(베트 크네세트: בית כנסת; House of Assembly)이다. 모임의 집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모임, 장례식, 재판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대인 공동체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모임의 집으로서 회당은 디아스포라 혹은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회당은 '기도의 집'(베트 테필라: בית תפילה: House of Prayer)이다. 어디든지 유대인의 회당 벽면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이사야 56:7)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자신들을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장도 없다. 오직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서기관과 랍비를 통하여 토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만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것이다. 회당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제사형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찬송하는 장소가 되었다. ③ 회당은 '배움의 집'(בית מדרש; Beth midrash; House of Learning)이다. 회당이 배움의 집이라는 뜻은 유대인들의 교육 활동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 처음 형태는 '벧 하세퍼'(Beth Hassepher: 책의 집)로 그 목적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토라를 읽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벧 하세퍼'는 초기에 회당 안에 있었으나, 후대에는 회당 옆에 방을 두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벧 하미드라쉬'(בית מדרש: Beth Hamidrash) 혹은 '벧 탈무드'(בית תלמוד: Beth Talmud)가 있었다. 이 회당에 부속된 학교를 '연구의 집'이라고 불렀다.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성직자 교육기관은 '아카데미'라고 하였다(Sherrill, 1994: 89; 은준관, 1988: 95). 이렇게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모임의 집이며, 예배를 위한 집이요, 교육을 위한 집이었다.

3)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기독교회 예배로 전환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초대 교회의 예배 형식의 많은 부분이 도입되었다. 유대교 회당은 무엇보다 '예배의 집', 또는 '기도의 집'이다. '예배의 집'으로서 회당은 예배를 위한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다. 회당의 전면부에는 강단과 강대상이 있고 성경 보관함, 등불과 나팔,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석, 회중석이 있다. 유대교 회당의 예배는 안식일과 절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회당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여섯 가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① 기원(invocation): 모든 예배는 '송축 받으실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라는 기원으로 시작된다. ② 쉐마 암송(The recitation of the shema): 구약성서 '쉐마 이스라엘'(신 6:4-9; 11:13-21; 민 15:37-41) 내용을 암송하며 신앙으로 고백한다, ③ 한두 곡 찬송(hymnal), ④ 기도문 낭송(prayers): '쉐모네 에스레' 기도문을 낭송한다. 18개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쉐모네 에스레'는 흔히 '테필라'(기도) 혹은 '아미다'(서서 기도하다)로 불리운다. 기도의 형식은 인도자가 18기도문을 선창하면,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한다. ⑤ 성경 봉독(The reading of th Law and the Prophets): 회당 예배의 중심으로 회당장 또는 특별히 지명된 자가 두루마리를 펼쳐 히브리어로 토라와 예언서를 각 순서대로 낭독하면 곧 이어 아람어로 통역한다. 예언서 낭독이 끝나면 회당 예배가 끝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예언서 낭독을 '하프타레'(해산)이라고도 부른다. ⑥ 강론/해설(The sermon): 낭독 후에 설교/해설이 첨가되기도 하며, ⑦ 축도(The benediction): 마지막으로 회당장의 축복기도와 회중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Sherrill, 1994: 64-65; 은준관, 1988: 94; McMinn, 1978: 118-119).

이러한 유대교 회당예배의 내용과 형식은 초대교회 예배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해석되어 적용되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행 6:9), 각 성과 촌(마 9:35; 눅 4:44)에 회당이 있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 기간에 이곳 회당에서 예배하시며(눅 4:16-21), 가르치시고(요 18:20), 무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마 12:9-13; 막 1:23-28),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전파 장소로 활용하였다(행 13:5; 18:19). 초대교회는 유대교 회당예배의 관습이나 형식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독자적인 예배와 영성생활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첫째, 초대 교인들의 예배 장소가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사건 이후 초대 교회 신자들은 점차 유대교적 관례에서 벗어나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모였다. 예컨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방(눅 24:33), 제자들이 모이던 어떤 다락방(행 1:13),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요한 마가의 모친의 집(행 2:1) 등에서 모였다(Cullmann, 1984: 8-9). 이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서 활발한 선교사역으로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 등 여러 지역에 믿는 신자들의 집에 모여 예배함으로 기독교회가 확장되었다. 둘째, 초대 교인들의 예배하는 시간의 변화이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은 토라에 규정된 대로 안

식일(Sabbath: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에 그들의 예배를 지켰다. 또한 미쉬나 코다쉼(Qodashim, 거룩한 것들)에서는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와 제물, 성전에 관련된 다양한 법규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토라와 미쉬나의 규정과는 달리 모이는 시간이나 예배형식을 그들 나름대로 새롭게 정하여 지켰다. 초기 기독교회는 유대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Herrentag), 곧 일주일의 첫째 날(sunday)을 '주님의 날'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주님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제자들이 식사하러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초대 교회 신자들이 모이는 모든 '주님의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다(Cullmann, 1984: 10).

셋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내용과 순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예배는 성전예배(제사)와 회당예배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전예배(제사)에서 드려진 희생제사는 기독교회의 '성례전'(the Sacraments)으로 연결되며, 기독교회의 '말씀'(the Word)은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토라와 예언서를 낭독하고 강론/해설하며, 교육활동을 한 회당예배와 연결이 된다(박은규, 1996: 73).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성전과 회당에서 동시에 예배가 드려졌다. 예수께서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린 흔적은 없지만, 성전에서 가르치셨고(막 14:49),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서를 읽고 예배를 드리셨다(눅 4:49).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 사역,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약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고 새로운 영적 예배의 문을 열어 놓으셨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다락방 예배와 오순절 경험을 통하여 무르익어, 마침내 회당예배와 다락방 예배의 내용이 통합되어 "말씀"과 "성례전"을 주축으로 하는 기독교회 예배의 윤곽이 드러났다(박은규, 1996: 73).

초대 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배의 핵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적 참여"를 확신했다. 그들은 성전과 회당은 물론 각 가정(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다. 특히 기독교회의 예배는 회당예배로부터 전승된 '응답'(responses)과 '즉흥기도'(extemporary prayers)는 사도시대 예배가 지닌 특징이었으며, '찬양기도'와 '성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예배는 '말씀'에 초점을 둔 6가지 내용과 오늘날 '성찬'에 해당되는 '떡을 떼는 일'이 두 개의 축을 이루었다(박은규, 1996: 73-74). 하나는, 말씀'에 초점을 둔 6가지 내용으로 ① 기도(감사, 소원, 중재기도, 주기도), ② 찬송(시편송과 성전의 찬송을 사용), ③ 교훈(성서 낭독 및 성서 주해), ④ 예언, ⑤ 방언, ⑥ 축도 등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성찬'에 해당되는 '떡을 떼는 일'(the breaking of the loaf)이다. 떡을 떼는 일은 친교(koinonia)를 위한 것인데, 단순히 상호적 동반관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와 영적 결합(spiritual bond)을 체험하는 친교식사였다. 이러한 '떡을 떼는 일'이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의 형식을 갖게 되었을 때, ① 주님과 함께 나누던 성찬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수행한다. ②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결단의 예식, ③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새 언약을 기억하고 재확증하는 모임이었다. 그리고 ④ 주의 만찬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이고,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공동식사였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예배에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려진 안식일과 절기의 희생제사의 완성, 바벨론 포로기 이후 등장한 유대교 회당예배의 말씀(토라와 예언서)과 해석, 성서의 연구와 교육,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전통이 그 바탕에 흐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미쉬나 코다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그리고 초대 교회의 예배에 새로운 신학적 의미로 재해석 되었다.

Ⅲ. 미쉬나 코다쉼의 내용 분석

미쉬나 코다쉼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1. 제사, 2. 동물도살, 3. 제사를 위한 예물, 4. 제2성전의 구조와 형태로 나누어 미쉬나 코다쉼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사

미쉬나 코다쉼의 11개 마세켓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내용은 5가지로, 제바힘(동물 제사법에 관한 규례), 메나홋(소제), 끊어짐(속죄제), 타미드(상번제), 키님(새 번제물 제사 규정) 훌린(동물도살, 비제사 도살)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1) 제바힘(Zevachim, 제사)

제바힘은 동물제사법에 대한 규례이다(레 1:1-9, 14-17, 3:1-5) 텍스트의 내용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의 절차에서 제사장이 원래 제주의 의도와 다르게 드린 경우에, 그 제사의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②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잘못된 의도로 제사가 드려짐으로 혐오스러운 제사가 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들과 제사를 무효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제의 절차에서 흠결이 있는 경우들을 다루고 있다. ③ 짐승들과 가금류의 희생에 대한 규칙과 다양한 희생물들로부터 유래하고 혼동된 피 혹은 희생의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 제단의 적절한 것은 신성화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성화하지 않는 경우, 제단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권, 의복이 분출하는 속죄의 제물의 피, 희생동물의 고기와 생가죽들의 적임에 제사장들 사이의 분할 등 제단의 규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제단의 적절한 위치와 그 위에서 수행되는 희생의 행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Zevachim: 2021).

2) 메나홋(Menachot, 소제들)

메나홋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이다(레 2:1-13, 6:7-11, 7:9-10). 텍스트의 내용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소제물에 대한 규칙으로, 소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 적법하게 드려진 소제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다루고 있다. ② 소제물을 위한 곡물, 기름,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③ 소제들의 적절한 준비로, 일반적인 규칙, 감사제물을 수반한 소제물, 소제물을 위해 사용되는 밀가루, 오일, 그리고 포도주의 원천, 제물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측정하는 것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특별한 소제물로, 호메르, 오순절 두 개의 떡덩이들과 떡상의 떡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⑤ 소제물들과 관련된 서약으로, 고운 가루의 소제물, 과자, 부침, 번철해서 만들어진 소제물, 팬에서 만들어진 소제물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Menachot, 2021).

3) 크리톳(Keritot, 끊어짐)

크리톳은 '카레트'(*karet*: 세속에서 때 묻은 것이 흠이 됨)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와, 이를 면하기 위한 속죄제사에 관한 규례(출 12:15, 레 17:4, 10, 14, 18:29)이다. 텍스트의 내용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카레트의 처벌을 받는 경우의 규정(창 17:14, 출 30:33, 38, 레 17:4, 9, 민 15:31 등)이다: ① 부지중에 카레트를 범하였을 경우, ② 출산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경우, 81일째 되는 말에 낙태한 경우, 피의 유출 등. 둘째, 속죄의식을 드려야 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다. 셋째, 금지된 제물의 지방을 먹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넷째,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Keritot, 2021).

4) 타미드(Tamid, 일일 제사)

타미드는 성전에서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에 관한 제의들에 관한 규례이다(출 30:7-8, 민 28:3-8). 텍스트의 내용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사장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의 재를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 전날 밤에 성전에서 잠을 자는 일, 성전에서 재를 제거하는 사람, 재를 치우는 일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둘째, 제를 지내기 위해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설명한다. 셋째, 제사장들이 맡은 일을 정하고, 일들의 시간을 확인하고, 일상의 번제물을 위해 양을 선택하는 것, 내부의 제단으로부터 재를 깨끗이 치우는 것, 양을 도살하는 것 등을 설명한다. 넷째, 상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설명한다. 다섯째, 회중을 축복하는 것, 재단에 양을 놓는 것, 기도(축복, 십계명, 축복), 양을 제단에 옮기는 것 등에 대해 설명한다. 여섯째, 재를 깨끗이 치우는 것과 그들의 처리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일곱째, 분향이 끝난 후에 대제사장, 책임자, 다른 제사장의 절하는 절차, 상번제를 드리는 예식, 레위인이 노래했던 찬양시 등에 대해 설명한다(Tamid, 2021).

5) 키님(Kinnim, 새들)

키님은 소, 염소, 양 등의 가축 대신 비둘기 등 새를 번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대한 규정(레 5:7-10, 12:8)이다. 텍스트의 내용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새속죄제의 절차, 속죄제물과 번제물들과 섞이지 않아야 함, 출산과 유출병을 위한 제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 키님 제물을 죽여야 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 제물을 위한 새의 짝을 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이다. 셋째,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다(Kinnim, 2021).

2. 동물 도살: 훌린(Chullin)

훌린은 동물의 도살하는 규칙을 다루는데, 제사 이외의 세속적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규칙을 다룬다. 이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이 세속 생활에서도 음식을 섭취하는데 있어서 정결법을 따르는 방식, 곧 '코셔'(Kosher)라 일컫는 유대인을 위한 정결한 음식을 다루는 방법을 논의한다. 아울러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바벨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함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훌린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고기를 사용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고, 나누는 것에 대한 규례이다(출 22:30). 텍스트의 내용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성전 바깥에서 혹은 성전에서 사용을 위해 비신성화된 동물들을 도살하는 것에 관한 규칙들에 대해 논의한다: ① 도살의 일반적인 규칙, ② 구체적인 규정, ③ 도살자 그리고 불법적인 희생물들, ④ 테레파와 유효한 몸통, 짐승의 몸체의 부분들에 대한 타당한 도살자의 영향 등이다. 둘째, 가정에서 혹은 성전에서 사용을 위해 비신성화된 동물들을 도살하는 것에 관한 규칙이다. ① 도살의 일반적인 규칙, ② 구체적인 규정, ③ 도살자 그리고 불법적인 희생물, ④ 테레파와 유효한 몸통, ⑤ 짐승의 몸체의 부분들에 대한 타당한 교살자의 영향 등이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신성화에 관하여 논의한다: ① 거룩한 약속의 땅, ② 성전, ③ 이스라엘 백성들 등이다. 넷째, 성전과 가정에서 적용된 율법은 폐허 속의 성전과 포로 중의 이스라엘에게 계속 적용된다. 비록 성전의 거룩함은 정지 상태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지속 된다: ① 성전의 파괴와 제물들의 중단, ②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타락, ③ 거룩한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방은 약속의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여전히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Chullin, 2021).

3. 제사를 위한 예물

제사를 위한 예물은 네 가지 주제, 브코롯(Bekhorot, 초태생들에 관련된 규례), 아라킨(Arakhin, 가격 사정: 성전에서 서원예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규례), 트무라(Temurah, 성전에서

바치는 대체 예물에 관한 규례), 메일라(Meilah, 성전에서 신성모독으로 부정함이 발생 되었을 때 관련 규정), 미돗(Middot: 제2성전의 구조와 형태, 규격, 척도 등에 관하여 다룬다.

1) 브코롯(Bekhorot, 초태생들)

브코롯은 맏아들과 맏배에 관한 규례(출애굽기 13:12, 민수기 18:15)이다. 텍스트의 내용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동물들의 초태생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이다: ① 당나귀의 초태생, ② 가축의 초태생, ③ 의심스러운 문제들의 결정, ④ 초태생은 털을 깎지 않는 것, ⑤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첫 것을 돌보도록 하는 명령 등이다. 둘째, 흠 때문에 첫째 것을 도살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다: ① 흠이 있는 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 첫째 것을 조사하는 것, ② 첫째 것을 도살하는 것에 관한 더 많은 규칙들, ③ 동물들에 있어서 흠들, ④ 제사장들에 있어서 흠들이다. 셋째, 남자 초태생의 흠에 대한 규칙이다. ① 머리털에 생긴 흠, ② 눈에 생긴 흠, ③ 그 외에 인체에 생긴 흠. 넷째, 가축의 초태생의 십일조에 대한 규칙이다(Bekhorot, 2021).

2) 아라킨(Arakhin, 가격 사정)

아라킨은 성전에 드리는 서원 예물과 관련한 규례(레위기 25:25-34, 27:1)이다. 텍스트의 내용은 9장으로 되어 있다. 첫째, 성전에 바치는 제물의 평가와 서약에 관한 규정이다: ① 기본적인 규칙, ② 특수한 규칙, ③ 서약들을 평가할 때에 지불하는 능력, ④ 평가를 맹세하는 것과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에 가치 혹은 가격을 서약하는 것 사이의 차이, ⑤ 평가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둘째, 상속으로서 받게 된 농장의 헌납과 속전 등에 대한 규정이다. 셋째, 헌신된 것, 넷째, 상속으로서 받게 된 농장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있어서 거주하는 곳(장소)에 판매와 속전에 관한 규정이다(Arakhin, 2021).

3) 트무라(Temura, 대체 예물)

트무라는 성전에 바치는 대체 예물의 교환에 관한 규례(레위기 27:9-10, 32-33)이다. 텍스트의 내용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물을 대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규칙들이다: ① 대체의 법에 대한 책임, ② 대체법으로부터 면제들, ③ 개인의 제물들은 대체법에 종속되고 공동체의 제물들은 그렇지 않다. 둘째, 대체 제물의 후손의 신분 등에 대한 규칙이다: ① 다양한 희생물들, 그 대체물들과 후손, ② 여분의 속죄제물 등이다. 셋째, 대체 행동이 영향을 미칠 때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규칙이다. 넷째, 형식적인 부록에 대한 규칙이다(Temura, 2021).

4) 메일라(Meilah, 신성모독)

메일라는 성전의 제물이나 기물 등 신에게 속한 재산에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하는 규정, 성물을 부정하게 한 경우에 관한 규정(레위기 5:14-16)이다. 텍스트의 내용은 6장으로 되어 있다. 첫째, 성전 제물들 중에서 신성 모독죄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① 신성모독의 율법들이 제물에 적용할 때, ② 재물의 신분에 있어서 단계들: 신성모독의 율법들이 다양한 재물들에 적용하는 강조점, ③ 신성모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제의적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제의적 자산이다. 둘째,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대한 규정이다: ① 속건제로 새를 준비하는 과정, ② 번제로 새를 드리는 과정, ③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과정, ④ 번제로 가축을 드리는 과정, ⑤ 속죄제와 속건제와 회중을 위한 화목제의 규정, ⑥ 칠칠절에 바치는 빵 두 덩어리, ⑦ 안식일마다 드리는 전설병, 소제 등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성전 자산의 신성 모독에 대한 규정이다: ① 성전 자산의 페루타의 가치가 세속의 목적들을 위해 사용될 때, 단지 신성모독이 된다. ② 신성모독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혹은 그것이 행해지는 사물에 의해서 정의된다. ③ 신성모독은 신성한 자산의 세속화에 영향을 미친다. ④ 신성모독이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 등이다(Meilah, 2021).

4. 제2성전의 구조와 형태: 미돗(Middot, 척도)

미돗(척도)은 제2성전의 구조와 형태, 각종 규격에 대한 규정이다(겔 40-48). 텍스트의 내용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성전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설명이다: ① 제사장들은 성전의 세 장소를 지켜야 한다. ② 성전산 책임자는 밤에 횃불을 들고 성전산을 돌아야 한다. ③ 성전산은 다섯 개의 문이 있다. ④ 성전의 뜰에는 7개의 문이 있다. ⑤ 북쪽에는 불꽃의 문이 있다. ⑥ 불의 방에 네 개의 방이 있다. ⑦ 불이 방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⑧ 불의 방은 아치 모양의 천장과 돌 구조물이 있는 넓은 방이다. ⑨ 불의 방에는 대리석으로 덮인 사방 일 큐빗의 공간이 있다. 둘째, 성전산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① 성전산은 오백 큐빗이다. ② 성전산은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온다. ③ 성전산 안에 손바닥 열 뼘의 소래그가 있었다. ④ 성전산의 모든 벽들은 높았다. ⑤ 여인의 틀은 길이가 135큐빗, 폭이 135큐빗이다. ⑥ 뜰 아래쪽, 여인의 뜰로 향하는 입구에 피리와 비파, 꽹가리 등 악기를 두는 방이 있다. 셋째, 제단에 대한 설명이다: ① 번제단은 가로 세로 32 아마 이다. ② 기초석의 모퉁이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나있다. ③ 남서쪽 모퉁이 바닥에는 한 아마의 정방형 공간이 있고, 고리 달린 대리석 판이 덮여있다. ④ 번제단과 경사로 쓰인 바위는 벧케렘에서 가져왔다. ⑤ 번제단의 북쪽에는 고리들이 있다. ⑥ 수조는 성소의 현관과 번제단 사이, 약간의 남쪽에 놓여있다. ⑦ 성소의 현관은 높이가 40 아마, 폭이 20 아마이다. ⑧ 성소의 벽부터 현관의 벽까지 뻗어있는 백향목의 막대들이 있다. 넷째, 성소에 대한 설명이다: ① 성소의 입구는 높이가 20 아마, 넓이가 10 아마이다. ② 성소의 대문은 두 개의 작은 문이 있다. ③ 성소와 지성소 둘레에는 38개의 방이 있다. ④ 아래층의 방은 넓이가 5 아마, 천장은 6 아마이다. ⑤ 메시바는 북동쪽 모퉁이로부터 북서쪽 모퉁이

로 올라간다. ⑥ 성소는 가로 100 아마와 세로 100 아마, 높이가 100 아마이다. ⑦ 동쪽의 끝에서 서쪽 끝까지 100 아마였다. 다섯째, 성전 뜰에 대한 설명이다: ① 성전 뜰은 길이가 87 아마, 폭이 135 아마이다. ②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 135 아마이다. ③ 성전 뜰에는 여섯 개의 방이 있다. ④ 성전 뜰의 남쪽에는 장작의 방, 유배의 방, 뜨인 돌의 방이 있다.

B.C.E. 586년 남유다왕국 22대 시드가야 왕을 끝으로 멸망한 유다 왕과 귀족, 제사장과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과 함께 종교적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갔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대신하여 회당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배우며, 실천하는 거룩한 삶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결국,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이 지난 이후, B.C.E.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시작하여 유대인들의 극적인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스룹바벨과 동료들,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예루살렘으로의 세 차례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의 종교제도와 양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회당이며,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배움, 실천 규범으로서 토라, 그리고 탈무드, 미쉬나, 게마라의 등장이다. 여기에 미쉬나 코다쉼이 자리하고 있다. 비록 C.E, 70년 로마제국에 의해 헤롯 성전이 무너짐으로 코다쉼 대다수 내용들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대교 회당 전통에는 코다쉼을 포함한 미쉬나의 연구와 교육, 안식일 예배와 절기 축제, 그리고 코셔(유대인을 위한 정결 음식) 등을 보전하고 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양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승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은 미쉬나 코다쉼의 규례와 정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Middot, 2021).

Ⅳ. 미쉬나 코다쉼의 기독교교육 적용방안

연구자는 유대교 미쉬나 코다쉼의 내용을 제사, 동물 도살, 제사를 위한 예물, 제2성전의 구조와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하여 미쉬나 코다쉼의 주요 내용들이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제사교육으로 예수님의 피흘림을 기억하는 예배

유대교 미쉬나 코다쉼은 성전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규례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연구자가 첫 번째로 분류한 코다쉼의 ‘제바힘(제사)에는 다섯 가지 내용, 곧 제바힘(제사), 메나홋(소제), 크리톳(끊어짐), 타미드(상번제), 키님(새들)

등을 다루었다. 제바힘(제사)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토라에 규정된 목적과 방법에 맞게 수행되어야 하며,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나 참여하는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랍비 엘리에제르(Rabbi Eliezer)와 랍비 여호수아(Rabbi Jehoshua)가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랍비 엘리에제르는 랍비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을 구약성서 신명기 13:1(우리말 성경에는 신 12:32에 위치한다.)을 들어 설명한다(제바힘 8장):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신 13:1). 제사장은 토라에서 명령한 그대로 제사를 지켜 행해야 한다. 제사장은 제사 명령의 내용을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사 내용을 감소하게 하였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된다. 그러나 능동적인 범죄는 수동적인 범죄(감소한 내용)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된다고 가르친다. 아울러 제사에 드려질 동물(소, 양, 염소, 비둘기)은 무흠해야 한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 짐승의 피는 성소 안에 위치해야 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세 군데라고 설명한다. 곧 성소 안의 기둥 사이에, 휘장 위에, 그리고 금으로 된 제단 위에 뿌려져야 한다. 랍비 아키바(Rabbi Akiva)는 제사에 드려진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레 6:23). 이처럼 유대교는 지금 비록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엇이었으며, 그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후손들에게 전승시켰다. 회당에서 가르쳐진 코다쉼은 모세로부터 전해진 토라의 제사들, 제물, 희생제물 짐승의 피 등에 관한 규정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예배는 성전 제사의 피 흘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구약성서의 제사제도와 희생제물, 그리고 짐승의 피 흘림과 같은 율법, 더 나아가 유대교 미쉬나 코다쉼이 보여주는 랍비들의 연구와 토론의 내용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등장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린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단번에”(once for all) 자기를 드리셨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였다(히 7:27-28; 마 5:17).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은 매우 귀중한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였다(히 9:12).

그러므로 오늘날 형식적으로 혹은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신자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미쉬나의 내용, 그리고 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들이 회당 드리는 예배와 미쉬나의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실천이 유대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예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선교명령(마 28:18-20; 막 16:15), 세상 끝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막 13장; 행 1:11; 계 1:7)는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출발이자 중심이 되는 예배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의 사건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 배움의 집으로서 교회교육의 중요성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과 제2성전이 있다. 먼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 때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 왕이 재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왕상 6:1), 이십년 동안 건축을 하였다(왕상 9:10). 솔로몬 왕은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고,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십사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지켰다(왕상 8:1-66). 이 성전의 구조와 내용은 열왕기상 5-7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건립된 솔로몬 성전은 주전 B.C.E. 586년 유다왕국 22대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제1성전은 무너지게 되었다.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등에 의해 재건된 스룹바벨성전(제2성전)이다(에스라 7:6, 10).

제1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성전 대신에 회당을 세웠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시기에 세워진 회당은 70년 포로기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유대인들의 열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유대인들은 유다왕국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종교적 상실감은 매우 큰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새로이 고찰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재발견하기를 희구하였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시기에 그들은 예언서, 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문 토라(Torah)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하는 거룩한 경전들, 곧 탈무드, 미쉬나, 미드라쉬 등과 같은 유산들을 후세대에 남겼다(Sherrill, 1994: 48). 이러한 흐름에서 유대교 회당의 가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 가지, 곧 모임의 장소, 예배와 기도의 장소, 교육의 장소로 기능하였다. 쉐릴이 지적한 것처럼, 유대교 회당에서 발전된 교육은 매우 놀라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회당에서 전개한 토라의 전승과 연구, 율법의 발전으로서 탈무드, 미쉬나, 게마라 등의 편집과 교육활동은 유대인의 저항의 무기이자,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다(Sherrill, 1994: 48).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른 지식의 확실성과 객관성의 해체, 인구절벽 시대의 젊은 인구의 감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회와 주일학교 교육활동의 제약, 교회의 비전 상실과 교육열 감소 현상 등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김정준, 2021: 11). 이러한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의 극복방안으로 연구자는 유대인들의 회당과 교육에 주목한다. 유대인들은 B.C.E. 586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신앙적으로 성찰하고, 동시에 깊이 있는 회당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결국 7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였음은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것을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 미쉬나 코다쉼 '미돗'(Middot)은 제2성전의 구조와 형태, 규격, 척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물론 후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쳐 전승하였다는 사실이다.

역사학계에 전해오는 경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1세기 유대 땅에서 성전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 베드로 신앙고백 위에 "내 교회"(마 16:16)를 세우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이래 기독교회 2,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이래로 사도들과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그리고 웨슬리 등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교회는 기독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구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배움의 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움의 집'으로서 한국교회의 깊은 역사인식과 교회교육의 강조는 21세기 위기를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데 큰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하나님의 말씀(율법, 계명)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교육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여하신 토라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한다(신 4:5-6; 신 6:25).

B.C.E. 70년 헤롯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 유대인들은 비록 성전 제사제도는 유지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할례, 안식일과 절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Kosher) 등을 지키고 있다.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유대교의 전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 내용도 있다. 미쉬나 코다쉼 "홀린"(속된 것들)의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Clean and Unclean)을 다루는 규례들과 관련이 있다. 토라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들은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삶은 거룩한 장소(성막), 거룩한 사람(제사장), 거룩한 시간(안식일, 대속죄일), 거룩한 행동들(제물을 바치는 일, 봉헌물, 결례를 행함)에 집중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동물을 먹는 것(레 11:1-38, 41; 신 14:3-20), 출산(레 12:1-8), 문둥병(레 13:1-14, 57), 몸의 유출병(레 15:1-33), 죽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 사체와 접촉(레 11:39-40), 노획된 전리품(민 31:23-24) 등과 관련하여 주의를 하였다("정한 것과 부정한 것," 아가페 성경사전, 1991: 1503-1504).

미쉬나 코다쉼 "홀린"(속된 것들)에는 율법에 따라 제사용이 아닌 동물의 도살하는 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며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홀린'에는 새나

동물의 도살방법을 규정한다. 예컨대 도살하는 사람, 시기, 도구, 사용하는 칼, 목뼈를 부러뜨리는 방법, 제물을 바치는 상황, 적절한 도구, 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이방인을 위한 도살, 가축의 피를 빼는 방법, 성전 밖에서 도살 등 자세한 방법과 내용을 규정한다. 다시 말하여 토라에 언급된 제사를 위한 제물 또는 사람의 먹거리를 위한 동물 도살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토라의 규례들에 대한 랍비들의 구체적 가르침으로서 "홀린"(속된 것들)의 내용들을 유대인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깊은 성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부족하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언급한 "오직 믿음으로 산다."(sola fide)는 언명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여,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무조건 믿으면 구원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값싼 은혜"(Cheap Grace)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하여 투쟁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D. Bohhoeffer, 1906-1945)는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이것이 "값싼 은혜"라고 하였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Expensive Grace)는 끊임없이 찾아야 할 복음이며, 기도해야 할 은사이며, 두드려야 할 문이다. 왜냐하면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은혜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Bohnhoeffer, 1995: 24-26).

미쉬나 코다쉼 '홀린'(동물 도살)에서 유대인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고, 아울러 기독교 신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로서 동물과 사람이 먹을 것으로 취하는 동물을 구분한다.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동물과 사람의 먹을 것을 위한 동물은 도살하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이 생명을 가진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도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계명이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진지하게 연구하고, 성찰하고,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신 6:25).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비록 구약의 제사제도나 유대교 미쉬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 깊이 연구하고 성찰하며,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배워야 한다. 21세기 위험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성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Ⅴ. 결 론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수많은 침략으로 자국이 멸망당하여 디아스포라(diaspora) 상태가 되었으며, 종교적인 행위가 금지되는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회당을 통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묵상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유대교 미쉬나 코다쉼에 있음을 연구자는 발견하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쉬나의 본질과 회당의 의미, 미쉬나 코다쉼의 주요 내용, 미쉬나 코다쉼의 기독교 교육의 적용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미쉬나의 다섯 번째 책인 코다쉼(Qodashim, 거룩한 것들)을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에 적용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유대교 회당의 “배움의 집”과 같이 기독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구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기독교 교회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수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에서도 유대인들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토라)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유대인의 영성과 그들의 삶에서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세계를 변혁하는 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윤응진, 2000: 65). 특히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교회를 “성전”으로 예배당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왕대일, 1997: 52).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제의 종교의 “성전”이 아니라 예언자 전통에 서있는 “회당”(교회)으로서 전환되는데 있다.

References

Bohnhoeffer, D. (1995).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37 출판).

D. Bohnhoeffer. (1995). *Nachfolge*. Trans. by Hyuk Heu.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riginal work published 1937)

조기연 (2019). 기도의 정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Translated in English) Cho, G. Y. (2019). *Crystallization of Pray: Learning from the Early Church*,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최창모 (1994). 이스라엘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Translated in English) Choi, C. M. (1984). *Israeli history*, Seoul: Korean textbooks.

Choi J. H. (2019). Introduction of Mishnah: Beyond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Christian idea, 721,* 126-139.

최인식 (2008). 유대교 산책, 경기 부천: 예루살렘 아카데미.

(Translated in English) Choi, I. S. (2008). *A Judaism Walk with Jesus*, Jerusalem Academy Publishers Bucheon, Korea.

Cohen, D. A. (1998). 토라탈무드, 기독문서간행회 역, 서울: 한글.(원저 1994 출판).

D. A. Cohen (1998). *Torah Talmud*. Trans. by Christian Document Publication, Seoul: Hangul. (Original work published 1994)

Cullmann, Oscar (1984). 원시기독교 예배. 이선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원저 1953 출판)

Oscar, Cullmann. (1984). *Early Christian Worship*, Trans. by Lee Sun Hee.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Original work published 1953)

Don, J. McMinn. (1978). *The Influence of the Synagogue on Early Christian Worship*. *Gospel & Praxis*, *1*(1), 115-126.

Johnson, Paul (2005). 유대인의 역사1, 김한성 옮김, 경기: 살림.(원저 1998 출판)

Paul, Johnson (2005). *A History of The Jews 1*, Trans. by Kim. H. S, Seoul: Sallim Publishing Co.(Original work published 1998)

Jeon, J. Y. (2019). Mishnah Vol.5, Qodashim: This is extremely holy, *Christian idea, 726,* 152-165.

정연호 (2010).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 바리새파의 재발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Jung, Y. H. (2010). *The Historical Process of Judaism: Rediscovery of Pharisaism*, Seoul: Korea Institute Biblical Studies.

Kim, J. J. (2021). New Perspectives on Sunday School of Korean Church for Next Gene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11-44.

Lee, I. H. The Origin of the Synagogue. *Bible & Archaeology*, 60, 41-60.

이성덕 (2011).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들. 서울: kmc.

(Translated in English) Lee, S. D. (2011). Turning points of Christianity in history. Seoul: kmc.

Lee, Sungmin. (2011). A Study on Jesus' Sermon at the Synagogue in Nazareth, *Theology & Praxis*, *27,* 153-184.

Neusner, J. (1973). *Learn Mishnah*. New Jersey: Behraman House.

Ok, J. H. (2011). *A Study on The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According to the Faith Education in the Talmu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onghoe University.

박은규 (1996).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Pak, U. K. (1996). *Rediscovering the Christion Worship*, *Theory, Practice and Worship aid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Raphael, N. Levi (1990). *Torah Study*, New York: Philipp Feldheim. Inc..

R. C. Musaph-Andriesse (1981). *From Torah to Kabbalah*, SCM PRESS LTD.

Sherrill, Lewis Joseph (1994). 기독교교육의 발생. 이숙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44 출판)

Lewis Joseph Sherrill (1994).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Trans. by Lee, Sook Jong.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Original work published 1944)

Steinsaltz, Adin (2006). *The Essential Talmud*, New York: Basic Books,

은준관 (1988).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Translated in English) Un J. K. (1988). *A theology of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nterman, Isaac (1971). *The Talmud*, NY: Bloch Publishing Company, 287-291.

Wang, D. I. (1997). Tent of Meeting, Temple, Synagogue, and Church: A Theological Reconsideration. *SHINHAK GWA SAIGE, 69,* 23-58.

윤응진 (2000). 비판적 기독교교육론, 서울: 다산글방.

(Translated in English) Yun, E. J.(2000). *Critical Christianity educational theory*, Seoul: Dasan Geung Bang.

윤응진 (2010). 기독교 교육신학Ⅱ. 서울: 기독한교

(Translated in English) Yun, E. J. (2010).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Ⅱ*, Seoul: Kidok Hankyo.

Sefaria (2011). Mishnah Retrieved 2021. 5.1 from https://www.sefaria.org/texts/Mishnah)

Sefaria (2011). Zevachim Retrieved 2021. 5.1. from https://www.sefaria.org/Mishnah_Zevachim

Sefaria (2011). Menachot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Menachot

Sefaria (2011). Keriot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Keritot

Sefaria (2011). Tamid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Tamid

Sefaria (2011). Kinnim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Kinnim
Sefaria (2011). Chullin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Chullin
Sefaria (2011). Bekhorot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Bekhorot
Sefaria (2011). Arakhin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Arakhin
Sefaria (2011). Temurah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Temurah
Sefaria (2011). Meilah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Meilah
Sefaria (2011). Middot Retrieved 2021. 5.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Middot